

일터 옮긴 전남 공무원들 영농현장서 구슬땀

코로나·가격폭락·인력부족
3중고에 시달리는 농촌돕기
2달간 전직원 1회 이상 참여
25일 강진 화훼농 온라인 판매



꽃작약 소포장 박스를 들고 있는 화훼농민 김남우씨.

“강진에서 부케 등 장식용으로 쓰이는 꽃작약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들의 일손돕기가 막대한 화훼농가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줬으면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거래 실종, 가격 폭락, 인력 부족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 농촌을 돕기 위해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잠시 청사를 떠나 사·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본격 영농철을 맞았음에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봄철 농촌일손돕기에 나선 것이다. 도청과 사업소, 사·군 전 직원이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농촌일손돕기 창구’도 개설해 운영중이다.

지난 25일에는 전남도청 관광문화체육국 직원 30여 명이 강진 상분마을을 찾았다. 마을 농가 대부분은 약용작물로 알려진 ‘유칼립투스’와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꽃작약’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꽃작약은 전국 생산량의 80%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산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 이벤트, 축제, 결혼식 등이 취소·연기돼 거래처 수요가 감소하고, 도매시장에서의 가격도 폭락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주름은 깊어지고 있다.

주민 김남남(49)씨는 “지난해까지는 없어서 못팔았는데, 올해는 이 꽃들을 어디에 처분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강진군이 온라인 소포장 판매를 지원하고, 전남도청 직원들이 나서 부족한 일손을 도우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있다. 강진군은 이날 들어 마을 내 피플영농조합법인을 도와 10송



꽃작약을 수확해 소포장 장사로 옮기고 있는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 직원들.

이(1만5000원)씩 온라인 소포장 판매를 시작했으며, 25일 매출 1억원을 넘어섰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 상분마을 꽃작약의 재배·포장 과정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신뢰도가 연일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높다.

김남우(46)씨는 “화훼시장 전반기 침체되면서 농가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내기는 어려웠는데, 강진군과 전남도청이 온라인 소포장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진호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일손돕기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현장에서 땀을 흘린 직원들도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초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관광문화체육국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꽃작약 10송이를 소박스에 담고 있다.

전남도·전남우정청 마늘 온라인 판매 지원

전남도와 전남지방우정청은 ‘코로나 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수급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판매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전남지방우정청과 협업해 신안군 마늘 생산농가를 돕기 위한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진행한다.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우체국쇼핑을 중심으로 11번가(5월 26일), 카카오톡(6월 3일)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마늘을 본격 판매한다.

이번 기획 상품은 신안농협에서 생산한 지난해산 갯마늘 50t이며, 1kg짜리 한 봉지를 아이스박스에 포장해 6600원에 할인 판매한다.

전남도는 신안군 마늘 생산 농가들의 판로를 열어주고, 할인쿠폰 등 온라인 마

케팅과 판촉비용을 지원한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우체국 쇼핑에 농가 돕기 상품 단독 배너를 설치해 상품을 판매한다. 또 우체국 대표 특가전(쇼핑25시, 주먹지, 슈퍼워클리)과 외부 채널을 활용해 매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사가간 동안 전남도와 우체국쇼핑, 신안군 홍보대사인 김수미 방송인의 홍보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기획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구매가 이어지도록 변화한 소비 경향에 맞춰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복지재단 유튜브 양성 교육강좌 개설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대상

전남복지재단이 최근 사회복지 유튜브 양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양성 교육강좌를 개설했다. 교육수요 조사 결과 시설홍보와 고객소통의 필수 플랫폼이 된 유튜브 활용 교육과정 신설 요청이 잇따라 접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역량강화 교육’을 ‘사회복지 유튜브 쓰기’를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이성종 복지영상 대표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온라인강좌로 진행한다. 내용은 기본이해와 인터뷰, 기획, 촬영, 제작, 편집, 저작권 등 7가지 주제이며, 33차시(회차당 15~20분) 총 6시간 교육 과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전남 소재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제작을 비롯 전문장비 활용법,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 소개까지 시설 형편에 맞는 유튜브 영상 제작법을 전수 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알맞은 콘텐츠 개발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남복지재단은 향후 교육수요에 맞춰 사회복지 전문 유튜브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강좌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인다. 신청접수는 오는 29일까지 이메일(2878125@jnwf.kr) 또는 전남복지재단 누리집(http://jnwf.kr)에서 할 수 있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 분야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대중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회복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강좌 개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도비 유학생 3명 증서 수여...최대 1억원 지원

강리현·김종찬·박진희씨
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

전남도는 지난 25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라남도 제1기 도비유학생’로 선발된 강리현(여·26)씨, 김종찬(26)씨, 박진희(여·28)씨 3명에게 으뜸인재 증서를 수여했다. 이들 유학생들은 유학기간과 국가에 따라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비유학생’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의브랜드사업으로 기획됐으며, 전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재들을 지역과 세계를 선도할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한 다. 평가의 공정·객관성 확보를 위해 총 3단계의 심사절차를 진행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역량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 역량평가는 리더의 자질과 현장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도비유학생들은 이날 증서수여식에서 개인별로 연구 분야와 유학계획, 지

역공헌 방안 등을 도민 멘토단 앞에서 발표했다.

바이오데이터공학 석사과정에 있는 김종찬씨는 교육봉사단체 ‘서로올림’을 설립해 6년째 회장을 맡고 있으며, 유전자정보 분석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화학에서 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강리현씨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포항의 방사광가속기

활용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박진희씨는 생물학적 공법을 이용한 오염물질 분해와 친환경 수처리 기술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방사광가속기 유치과정에서 지역출신 과학자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도비유학생으로 선발된 인재들이 과학계에서 지역을 대변할 든든한 과학자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는 기치아래 3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매년 1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미래지역을 이끌어갈 으뜸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니터링·협업으로 피해 최소화

최근 확산된 연안에 갯생이모자반이 유입됨에 따라 전남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상황전파,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피해발생 최소화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갯생이모자반은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확산된 연안에 30여t이 유입됐으며, 수온이 섭씨 20도 이상 돼야 자연소멸 될 것으로 보여 다음달 중순까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다의 불청객인 갯생이모자반은 수온이 상승한 봄철 동중국 해안에서 발생해 대마나류에 편승해 우리나라 남서부 해역으로 유입된다.

해안 경관을 훼손하고 선박 안전운항 방해는 물론 양식시설물에 붙어 어업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7년 2820t, 2018년 2045t이 전남도에 316여가 2억 8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상에 부유한 갯생이모자반에 대해 해양환경공단을 비롯 한 국어촌어항공단이 운영한 청황선과 어항관리선을 투입해 대응하고, 해안가에 밀려온 갯생이모자반은 바다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해 신속히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 수산피해 최소화화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등 유관기관의 예측 결과를 해당 사·군과 어업인에게 신속히 전파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 |
|-------------|--|
|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매매가 : 48억 |
|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매매가 : 61억 조정가 |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매매가 : 29억 5천 |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 | |
|-------------|---|
| 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건물 : 9059.72㎡(2740.6평)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
| 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건물 : 3334㎡(1008.5평)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
|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건물 : 1296㎡(392평)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
| 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건물 : 586㎡(177.3평)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
|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건물 : 451.1평
최저가 (70%) 7억2백만원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